

광주은행 '특급 브랜드파워'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 6년 연속 1위
탄탄한 영업력·디지털뱅킹 혁신·사회적 책임활동 성과

광주·전남 유일 향토은행 광주은행이 6년 연속 지방은행 ‘브랜드파워’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광주은행은 금융산업 위기 속에서도 지역 내 탄탄한 영업력과 지속적인 디지털뱅킹 혁신 그리고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국내 대표 지방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광주은행은 26일 본점에서 ‘2023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1위 인증식을 개최했다.
인증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 박만 노동조합 위원장과 임직 및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이립 민간총괄 CCO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로 25회를 맞는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브랜드관리 모델로서 대한민국 소비생활을 대표하는 소비자, 내구재, 서비스재 등 233개 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평가제도다. 평가는 서울시에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1대 1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진

다.
광주은행은 2016년부터 조사된 지방은행 부문에서 이미지와 선호도, 이용가능성 등 로열티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18년부터 6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에서 지방은행 부문 1위에 올랐다.
브랜드파워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올해로 창립 55주년을 맞이하는 광주은행은 명실상부한 우수 브랜드로서 입지를 굳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은행은 공신력 있는 국내 브랜드 평가 지표에서 광주은행이라는 브랜드가 소비자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인정받은 만큼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자평했다.
KMAC는 인증식에서 “광주은행은 금융소비자 들로부터 ‘친절하고 믿음이 가는 은행’,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안정적인 은행’으로 신뢰받고 있다”며 “임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로 6년 연속 1위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광주은행의 수상을 축하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6년 연속 1위의 결과에는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사회 문제에 공감하며,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최선의 노력들이 광주은행의 브랜드에 힘을 실어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금융을 통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브랜드파워 1위 수상 외에도 광주은행은 지역민과의 상생 행보로 다양한 수상을 이끌어냈다.
작년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소기업 대출, 관계형금융, 개인사업자대출 119 등을 적극적으로 공급한 공을 인정받아 ‘포용금융 중소기업 지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2022년 관계형금융 취급실적 및 우수은행 평가’에서도 공로를 인정받았다.
무엇보다 지역 중소기업 및 중저민에 대한 금융 지원, 지역 예금을 받는 금융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돕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보는 관계형금융과 지역 재무자 평가 등 다양한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든 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연간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광주은행은 사회공헌활동 비용으로 당기순이익의 13%를 사용했다. 광주은행은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재)광주은행장학회 등을



‘2023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1위 인증식에서 고병일(왼쪽) 광주은행장, 이립(가운데) 한국능률협회 민간총괄 CCO, 박만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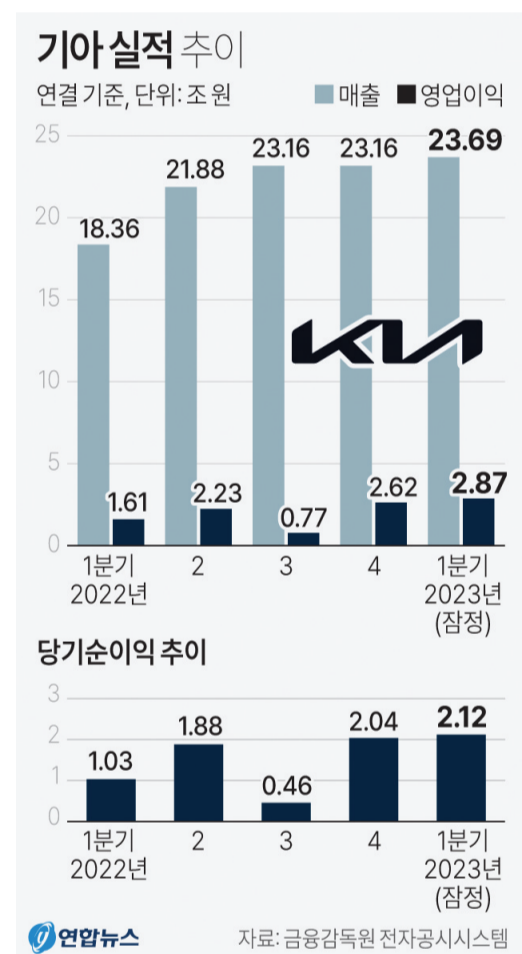
4400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7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2022년에는 광주·전남 최초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1분기 매출·영업익 ‘역대 최대’

매출 23조6907억원...영업익 2조8740억 전년동기비 78.9% '썰썰' 글로벌 판매량 12% ↑...기아 "EV9 등 전기차 브랜드 입지 다질 것"

기아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조8740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26일 기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1분기 대비 29.1% 증가한 23조6907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78.9% 증가한 2조8740억원을 기록, 종전 최대였던 지난해 4분기 2조6243억원을 넘어섰다.
앞서 전년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1분기 영업이익은 3조5927억원이라는 점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영업이익은 무려 6조5000억원대에 달한다.
1분기 도매 기준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76만8251대로, 국내에서는 전년 대비 16.5% 증가한 14만1740대, 해외에서는 11.1% 늘어난 62만6511대를 판매했다.
카니발과 스포티지, 쏘렌토 등 수요가 많은 RV 차량 중심으로 판매가 늘었는데, 반도체 공급난이 심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기저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판매는 공급 개선에 따른 가용 재고 증가가 판매 확대에 이어지는 선순환이 작용하는 가운데 주요 시장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달성했다.
미국 시장에서 주력 RV 차량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난 점, 인도 공장 3교대 전환에 따른 물량 증

가, 신형 스포티지 및 캔센스(인도) 신차효과 등의 영향이 컸다.
분기 매출은 생산 정상화에 따른 판매 물량 증가, 대당 판매가격 상승 지속, 후호적 환율효과 등에 힘입어 30% 가까운 증가 폭을 기록했다.
기아 관계자는 "전조한 수요가 유지된 가운데 생산 정상화 및 가용 재고 확대로 판매가 증가했다"며 "고수익 차량 중심 판매에 따른 판매 가격 상승, 인센티브 절감 등 수익구조가 개선된 가운데 후호적 환율 영향이 더해져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기아는 올 상반기 국제 경제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심화, 고급·고불가로 인한 수요 위축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판매 사이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선순환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2분기는 통상 자동차업에서 최성수기 진입 기간으로 여겨지는 만큼 생산과 판매를 최대화해 대기 수요를 신속히 해소하고 친환경차와 고수익 RV 모델 중심 판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큰 기대를 모으는 두 번째 전용 전기차 EV9을 국내에 먼저 출시하고, 이어 하반기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시장에 투입해 전기차 브랜드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진다는 구상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 미 GE·EPRI와 수소·암모니아 기술협력 MOU

한국전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GE Vernova와 수소·암모니아 및 CCUS 분야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양사는 지난 201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멕시코 노르메 II 가스복합 사업과 현재 건설 중인 말레이시아 플라운다 가스복합 사업, 연내 착공 예정인 사우디 자푸라 열병합 사업에 함께 참여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양사는 기존 협력분야인 화학발전 가스터빈에 적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 전소기술과 함께 수소 연소 기술과 CCUS 실증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정전에너지 분야까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을 약속했다.
아울러 한전은 지난 24일 미국전력연구원(EPRI)과 수소·암모니아를 포함한 탄소중립 R



&D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전은 EPRI와는 기존의 수소·암모니아 혼소 및 전력망 효율화 R&D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동 실증 및 사업까지 탄소중립 파트너십을 넓혀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우체국금융 '차세대종합금융시스템' 도입

내달 8일부터 빅데이터·AI 기반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우체국금융이 수년간 공들인 '차세대종합금융 시스템'을 도입해 다음달 8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손승현)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기반의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고객 중심의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체국금융 시스템은 지난 2000년 구축된 것으로 초개인화되는 금융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우체국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 상품 추천이 가능하고, 자산관리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클라우드 기반 신규 인프라가 조성돼 24시간 365일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져 시간 제약 없이

중단없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빠른 전산처리가 가능해 우체국 창구에서 대기해야 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우체국 창구는 모바일 예약서비스가 가능해져 모바일 앱을 통해 번호표 발급, 대기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새로운 시스템 전환을 위해 다음달 5일 새벽 0시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총 78시간 동안 모든 우체국 예금·보험 금융거래가 전면(일시) 중단돼 고객 불편이 예상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와 자동화기기 입·출금이 체 및 조회, 체크카드, 현금카드 및 타 금융기관에서 우체국 계좌를 이용한 거래까지 제한된다.
각종 사고 신고는 우체국 콜센터(1588-1900, 1599-1900)를 통해 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SG사태' 급락주, 사흘간 시총 4조 증발

삼천리·대성홀딩스 등 1조 이상 등 8개 종목 70% 급락
금융위, 작전세력 개입 주가 조작 의혹 집중 조사키로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을 통해 매물이 쏟아지며 급락한 8개 종목이 최근 사흘간 시가총액이 4조원 넘게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선광, 하림지주, 세방,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음투자증권, 다음데이터 등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난 21일 종가 기준 대비 전년 기준으로 4조1995억원 감소했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등 3개 종목의 시총은 사흘 새 각각 1조원 이상씩 증발했다. 다음데이터와 하림지주의 시총도 이 기간에 각각 8500억원, 7100억원어치 감소했다.
갑작스럽게 물량 폭탄이 쏟아지면서 이들 8개 종목

주가는 불과 사흘 동안 최대 70% 가까이 급락했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선광 등 4개 종목 주가는 지난 21일 종가 대비 각각 65% 이상씩 하락했다. 다음데이터 주가도 60% 넘게 하락했으며 다음투자증권과 하림지주는 각각 40% 가까이 떨어졌다.
이들 8개 종목은 지난 24일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거나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한 종목들로, 주로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을 통해 대량 매물이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장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세력의 계좌에서 차액결제거래(CFD) 반대 매매 매물이 쏟아져 주가가 급락했을 가능성이 무거워지고 있다.
특히 증권가에선 이들 종목이 빛을 내 투자한 신용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과도한 차입 투자를 증가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 역시 이 계좌를 활용한 탓에 뒤늦게 가담했거나 끝까지 남아 있는 경우 손실이 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해 과도한 차입(레버리지)을 통한 이른바 '빚투'(빚을 내 투자)를 통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차액 결제거래(CFD)는 개인이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 차이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으로 지난 2019년 교보증권권을 시작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실제 매매는 외국계 증권사가하므로 주체는 외국계 증권사로 잡힌다.
투자자 입장에서선 종목별로 1주를 살 수 있는 금액으로 3주를 매수할 수 있고, 차입도 가능해 최대 10배까지 투자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데다 투자 주체가 누구인지도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증권사는 중간에서 자금 대유 이자를 받으며 계좌가 주가 하락으로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 반대매매(청산)해 계좌에 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해 작전세력이 개입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8개 종목의 주가를 보면 작년 4월 이후부터 강세를 펼치며 이달 초까지 1년여간 급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데이터는 작년 7월 12일 장중 9840원에서 지난 2월 7일 5만3200원까지 440.65% 뛰었고, 코스피 상장사 세방 역시 작년 6월 23일 장중 9890원에서 지난 2월 7일 5만1800원까지 423.76% 급등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기상으로 주가 폭락은 조사에 나온 것을 알고 세력들이 팔고 나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평동농협,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실시

평동농협(조합장 최삼규)은 지난 24일 평동농협평화주유소에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발대식을 갖고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평동지역에 공급되는 토양개량제는 논지 98ha에 살포할 수 있는 양으로 이날 평동농협 청년부(회장 김준태)가 주축이 된 공동살포단 30명이 트랙터와 퇴비살포기 등 농기계 10대를 동원해 토양개량제를 살포했다.
토양개량제 살포는 토양의 지력을 유지·보전하고 비의 도복 피해방지와 출수량을 높이는 중요한 작업이다. 평동농협은 고령화·부녀화된 농

촌여건을 감안해 토양개량제가 공급되는 3년 주기로 공동살포를 실시하고 있다.
최삼규 조합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로 개별살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품질은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지역 농업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84.83(-4.19)
↓ 코스닥	830.44(-8.27)
↓ 금리(국고채 3년)	3.231(-0.034)
↑ 환율(USD)	1336.30(+4.10)